

#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비교\*

박 윤 지<sup>1)</sup> · 전 명 희<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성비의 불균형,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농촌남성과의 결혼 기피현상, 만혼의 경향 및 국제결혼 중개업의 성행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및 상황적 요인에 의해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한국남성들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1990년 619건에서 2000년 11,605건, 2010년 34,235건으로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통계청, 2010), 우리나라는 적절한 제도적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다민족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는 문화와 가치관 및 성격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최성도, 2011; 정예리, 2011; 여성가족부, 2007) 등으로 더욱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 통계 자료를 보면,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총 이혼건수는 2003년 16만6617건에서 2010년 11만6858건으로 감소한 반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5.6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이들 부부의 적응 및 부부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정예리, 2011). 국제결혼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으로 이들 인구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관리는 간호학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만 주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김미경, 2010; 이영분, 이유헌, 2009), 가족간호 측면에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이들 자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인구집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은 물론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바라지만 결혼 전에 살아온 방식이 달라 사랑만으로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혼만족도는 주로 결혼적응, 결혼행복도, 결혼성공도, 결혼의 안정성 등과 같이 다양한 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Lewis & Spanier, 1979), 아직은 국내 결혼 이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 만족도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 일반부부들의 결혼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정현숙, 2001). 삶의 질 정도는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방활란, 1991),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주위의 차별대우, 타국생활에서의 부적응, 국적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불행한 현 상황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적응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이연숙, 2008).

그 동안의 국제결혼부부에 대한 결혼 만족도나 실태조사는

**주요어 :** 국제결혼, 결혼만족도, 삶의 질, 여성결혼이민자

\* 이 논문은 제 1 저자 박윤지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1)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저자 E-mail: lava-p@hanmail.net)

2)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12년 4월 17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3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박윤지, 2008; 이영선, 2008; 류명옥, 2007; 장지혜, 2007; 최지명, 2007). 특수한 결혼 전 만남이나 결혼 목적이 상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한 국제결혼의 경우 여성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남성 쪽의 시각도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박윤지(2008)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남녀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추후 다문화 사회의 국제결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가족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관련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의 상관성을 확인한다.

## 용어 정의

● 결혼만족도 : 주어진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시간적 차원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서 부부 서로가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Roach, Frazier, & Browden, 1981), 본 연구에서는 Roach의 결혼만족도 측정도구(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기초로 김미숙(1989)이 수정 보완한 결혼만족도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삶의 질 :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을 말한다(WHO, 1993).

본 연구에서는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및 김동기(2000)가 세계보건기구 삶의질 측정도구(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간편형 척도인 한국판 WHOQOL-BREF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확인하고 이들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자

대전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 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면 동의한 남성 56명, 여성 91명, 총 147명을 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부부를 쌍으로 함께 하지 않았다. 남성 대상자의 자료수집은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들의 모임에서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한 사람에게 한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 알게 된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료수집은 한국어학당에 수업을 받으러 온 여성, 아이와 함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한 여성, 추석음식을 배우기 위해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여성,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수는 medium effect size(0.5), 통계적 검정력을 0.8, 양측검정으로 하여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산출하였을 때 국제결혼을 한 남성 64명, 여성결혼이민자 64명 총 128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 결과 국제결혼을 한 남성은 56명, 여성결혼이민자는 91명으로 총 대상자수는 147명이었다. 주변 지역에서 더 이상의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 이와 같은 대상자수를 가지고 검정력을 계산하였을 때 power=.83이었으므로 더 이상 자료수집을 추가하지 않았다.

### 연구 도구

#### ●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Roach의 결혼 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기초로 김미숙(1989)이 수정 보완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총 25문항(긍정적 문항 15문항, 부정적 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5점 ~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김미숙(198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46이었다.

● 삶의 질

본 연구의 삶의 질 척도는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및 김동기(2000)가 세계보건기구 삶의질 측정도구(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간편형 척도인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총점의 범위는 26점~1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민성길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75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루어졌다. 충북 소재 보건소, 대전시 소재 한국어 학당 혹은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국제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에게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어렵지 않은 한국어는 쉽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여성 한 명, 중국어와 영어의 일상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자료수집 때마다 외국인 대상자에게 설문지 번역을 도와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통역자1. 베트남에서 시집 온 당시 결혼 4년차 여성결혼이민자로 충북 옥천군보건소에서 고용하여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의 민원업무를 도움.

통역자2. 대전외고 중국어과 차석졸업자로 전국 고등학생 중국어말하기 대회에서 4위를 했었고 영어도 일상대화는 자연스럽게 원어민과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임.)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과 결혼 관련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t-test,  $\chi^2$ -test를 하였다.
- 국제결혼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남녀 대상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에 따른 대상자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47)

Variables	Male (n=56)		Female (n=91)		t/ $\chi^2$	p
	n(%)	Mean±SD	n(%)	Mean±SD		
Age(year)	< 24	0(0.0)	44(48.4)		16.41	<.001
	25 ~ 30	1(1.8)	28(30.8)	26.48±5.54		
	31 ~ 40	27(48.2)	17(18.7)			
	> 41	28(50.0)	2(2.2)			
Religion	yes	38(67.9)	67(73.6)		0.57	.452
	no	18(32.1)	24(26.4)			
Religious agreement with the spouse	agreement	34(60.7)	48(52.7)		0.89	.220
	disagreement	22(39.3)	43(47.3)			
The number of children		1.16±1.02		0.96±0.86	1.31	.193
Home form	nuclear family	38(67.9)	45(49.5)		0.48	.040
	extended family	18(32.1)	46(50.5)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8(14.3)	50(54.9)		27.22	<.001
	high school	38(67.9)	25(27.5)			
	>college	10(17.9)	16(17.6)			
Employed status	yes	53(94.6)	13(14.4)		68.51	<.001*
	no	3(5.4)	78(85.7)			
Monthly income(1,000 \)	< 990	11(19.6)	17(18.9)		0.94	.824
	1,000~1,490	14(25.0)	29(32.2)			
	1,500~1,990	19(33.9)	26(28.9)			
	> 2,000	12(21.4)	18(20.0)			

\* Fisher's exact test

●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남성은 31~40세가 48.2%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0.64(±4.21)세 이었다. 여자의 대부분은 30세 이하였으며 여자의 평균연령은 26.48(±5.54)세이었다. 남성과 여성대상자의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6.41, p<.001). 학력은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이 38명(67.9%), 여성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50명(54.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남녀 간의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sup>2</sup>=27.22, p<.001). 여성 중 13명(14.4%)은 직업이 있었고, 이 중 8명이 생산직,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성 중 53명(94.6%)은 직업이 있었고, 이 중 24명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녀 간의 직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sup>2</sup>= 68.51, p<.001).

종교에 따른 남녀 차이를 보면 남성은 38명(67.9%), 여성은 67명(73.6%)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종교를 지닌 비율이

높았다. 평균 자녀수는 남자가 더 많았으며(1.16±1.02명 vs. 0.96±0.86명), 남성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많았고(38명, 67.9%), 여성의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 더 많았다(46명, 50.5%). 평균 가계 수입은 남성의 경우 150만원~199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19명, 33.3%), 여성은 100만원~149만원인 경우가 29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종교, 가족형태, 자녀수, 가계 수입의 남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0).

● 결혼관련 특성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를 보면 남성은 54명(96.4%), 여성은 79명(86.8%)이었다<Table 2>. 여성의 경우 본인 혹은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가 남성에 비하여 많았다. 결혼 방법을 보면, 남성은 지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만났고(26명, 46.4%), 여성은 결혼중개업자(30명, 33.0%)를 통한 결혼이 가장 많았다. 배우

<Table 2> Marital characteristics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N=147)

Variables	Male (n=56)		Female (n=91)		t/x <sup>2</sup>	p
	n(%)	Mean±SD	n(%)	Mean±SD		
The age gap with a life partner(Year)	<10	11(19.6)	18(19.8)		1.61	.110
	10 ~ 15	24(42.9)	31(34.1)	14.50±5.60		
	> 15	21(37.5)	42(46.2)			
Duration of the marriage(year)	< 1	8(14.3)	16(17.6)		1.04	.301
	12 to 24	24(42.9)	34(37.4)	28.88±28.91		
	25 to 36	4(7.1)	19(20.9)			
	>37	20(35.7)	22(24.2)			
The number of the marriages	both of couple got married first	54(96.4)	79(86.8)			7.94
	both of couple got remarried	0(0.0)	4(4.4)			
	only spouse got remarried	0(0.0)	7(7.7)			
	only subject got remarried	2(3.6)	1(1.1)			
Method of marriage	acquaintance	26(46.4)	22(24.2)		23.39	<.001*
	religious organization	6(10.7)	12(13.2)			
	marriage mediation agency	23(41.1)	30(33.0)			
	other	1(1.8)	27(29.7)			
The first impression about the spouse	very favorable	33(58.9)	51(56.0)		3.38	.323*
	favorable	22(39.3)	31(34.1)			
	not favorable	0(0.0)	4(4.4)			
	never favorable	1(1.8)	5(5.5)			
The number of the meeting before marriage	0 to 1	24(42.9)	33(36.3)		2.38	.305
	2 to 4	23(41.1)	47(51.6)			
	more than 5	9(16.0)	11(12.1)			
The way to solve the conflict	conversation	40(71.4)	74(81.3)		3.54	.171
	doing nothing	10(17.9)	7(7.7)			
	etc.	6(10.7)	10(11.0)			
The spouse's degree of understanding me	very well	4(7.1)	34(37.4)		18.66	<.001
	well	45(80.4)	49(53.8)			
	not well	7(12.5)	6(6.6)			
	never	0(0.0)	2(2.2)			
Have ever considered divorce	yes	10(17.9)	8(8.8)		2.65	.103
	no	46(82.1)	83(91.2)			

\* Fisher's exact test

자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은 45명(80.4%), 여성은 49명(53.8%)이 배우자가 어느 정도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혼횟수, 결혼 방법 및 배우자의 이해정도에 대한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0$ ).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를 보면, 남성은 평균 13.02(±5.06)세, 여성은 14.50(±5.60)세이었다. 배우자의 첫인상을 보면, 남성은 33명(58.9%)이 상대방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응답하였고, 22명(39.3%)은 조금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다. 여성은 51명(56.0%)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고, 31명(34.1%)이 조금 마음에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 전 만남 횟수를 보면, 남성은 24명(42.9%)이 0~1회, 23명(41.1%)은 2~4회이었으며, 여성은 33명(36.3%)이 0~1회, 47명(51.6%)이 2~4회 만났다. 한편 남성 중 40명(71.4%), 여성 중 74명(81.3%)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였다. 남성 중 46명(82.1%), 여성 중 83명(91.2%)이 이혼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간의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상대방에 대한 첫 인상, 결혼 전 만남 횟수, 부부 사이의 갈등 해결방법, 이혼 고려 등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0$ ).

국제결혼을 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Table 3>, 결혼 후 처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가 35명(62.5%),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21명(37.5%)이었고, 33명(58.9%)은 배우자와 소통이 잘 되고 있었다. 남성 연구 대상자의 배우자는 베트남 출신이 35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 연구 대상자의 배우자 중 35명(62.5%)은 보통 수준의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결혼 관련 특성을 보면, 57명(62.6%)은 한국에 오기 전 직업이 있었고, 57명(62.6%)은 결혼 후 가정에서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결혼 전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68명(7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필리핀 10명(11.0%), 중국 5명(5.5%)이었다. 한국문화의 이해정도를 보면, 63명(69.2%)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이었고, 16명(17.6%)은 이해를 잘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며, 9명(9.9%)은 이해를 잘 못하여 생활이 불편한 정도이었고, 3명(3.3%)은 이해를 잘하여 생활이 즐거운 정도이었다. 63명(69.2%)은 외국인이어서 가족들에게 무시당한

<Table 3>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ter-racial marriage

(N=147)

Variables		n(%)
Husband provides wife's parent with economical support	yes	35(62.5)
	no	21(37.5)
Conversation with wife	very good	9(16.1)
	good	33(58.9)
	not good	14(25.0)
Nationality of the wife	Vietnam	35(62.5)
	Philippine	8(14.3)
	China	5(8.9)
	others	8(14.3)
Wife's ability of Korean language	bad	15(26.8)
	not bad	35(62.5)
	good	5(8.9)
	very good	1(1.8)
Had a job before marriage	yes	57(62.6)
	no	34(37.4)
With whom you spend most of the time when you stay at home	husband	23(25.3)
	children	57(62.6)
	mother-in-law	6(6.6)
	other family members in-law	5(5.5)
Nationality	Vietnam	68(74.7)
	Philippine	10(11.0)
	China	5(5.5)
	others	8(8.8)
Degree of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never understand	9(9.9)
	understand somehow	63(69.2)
	understand well	16(17.6)
	understand very well	3(3.3)
Family member's ignorance because you are a foreigner	yes	28(30.8)
	no	63(69.2)

경험이 있었다.

### 국제결혼 한 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의 차이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을 한 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87.61(±14.20)점, 여자의 결혼만족도는 83.54(±8.64)점으로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이 높았다( $t=2.16, p=.032$ ). 삶의 질은 남성 86.75(±11.34)점, 여성 93.30(±14.75)점으로 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85, p=.005$ ).

### 국제결혼 한 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면<Table 4>,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r=.435, p<.001$ ).

## 논 의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증가만큼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0). 국제결혼한 부부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이혼까지 이르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에 자료수집을 마쳤으나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 측면에서 연구가 많았고,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와 삶의 질을 조사함으로써 국제결혼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87.61(±14.20)점, 여자의 결혼만족도는 83.54(±8.64)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2.16, p=.032$ ). 이는 방인하(2010)의 국

제결혼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동시에 조사하였을 경우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부인의 결혼 만족도에 비하여 더 높았다고 한 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면, 남성은 70.0% 여성은 66.8% 정도로 이영분, 이유경(2009)의 여성결혼 이민자 263명의 결혼만족도(72.2%)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인 이유는 국제 결혼한 남성의 오랜 독신 생활불편이 국제결혼을 통해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삶의 질은 남성 86.75(±11.34)점, 여성 93.30(±14.75)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0.85, p=.005$ ).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결혼 이민자 부부의 삶의 질에 대해 연구한 엄동춘(2010)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의 삶의 질은 85.83점(±7.0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은 88.78점(±15.61)으로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WHOQOL-BREF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인과 우울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B.N. Subodh et al. (2008)의 연구를 보면 일반인의 삶의 질이 97.85점(±10.40)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질 점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공통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여성 대상자의 국적에 따른 번역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내원한 부부인 경우 여성 대상자가 남편의 영향을 배제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실제 보다 좀 더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정확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적절한 설문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을 한 남성에 비해 결혼만족도는 낮지만 삶의 질이 높았음은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한 뒤 본국 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다른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달리 남편의 지지 아래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은 자들이므로 다른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하여 남편의 지지나 생활 형편이 좋은 대상자였기 때문에 다른 결혼이민여성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

<Table 4> Mean difference and correlation of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male and female (N=147)

		Male(n=56)	Female(n=91)	Total(N=147)	t(p)
		Mean ±SD/r(P)	Mean ±SD/r(P)	Mean ±SD/r(P)	
Mean difference	MS	87.61±14.20	83.54±8.64	85.01±11.21	2.16(.032)
	QOL	86.75±11.34	93.30±14.75	90.08±13.88	-2.85(.005)
Correlation between MS and QOL		.630 (<.001)	.456 (<.001)	.435 (<.001)	

MS: marital satisfaction; QOL: quality of life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만족도와 삶의 질을 연구할 때 일반 내국인 부부의 경우와 다르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수는 부부간의 연령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김성철, 2010; 이연숙, 2008),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성은 평균 37.7세, 여자 평균 24.1세이고,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는 남성은 13.02(±5.06)세, 여성은 14.50(±5.60)세나 되었다. 한편 국내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남자 31.8세, 여자 28.9세인 점을 고려할 때(통계청, 2010), 본 연구의 평균 혼인 연령은 국내 평균 초혼 연령에 비하여 남성은 5.9세 많고, 여성은 4.8세 어렸다. 이와 같이 국내 일반 부부와 달리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부부 사이의 연령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결혼이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일반 국내 부부와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으며, 나이의 차이는 부부간의 생각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부부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으며( $r=.435, p<.001$ ),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도 일반 내국인 부부(여정희, 2004)와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결혼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다른 문헌(박윤지, 2008; 정현숙, 2001)에서와 같이 입증해주고 있다.

국내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는 종교(이동원, 1988), 월소득(김성철, 2010), 학력(류명옥, 2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녀수와 결혼기간(이영분과 이유경, 2009)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높았었다. 그 외에도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경제적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최지명, 2007; 이영선, 2008; 류명옥, 2007).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은 일반적인 국내 부부의 결혼조건과 달리 처가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부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Woelz-Stirling, Manderson, Kelaher와 Gorden (2000)은 필리핀에서는 문화적으로 아들, 딸 구분 없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대상자의 배우자 중 베트남 출신이 62.5%(35명)이었고, 필리핀 출신이 14.3%(8명)으로 필리핀 출신은 많지 않았지만 남성대상자 중 처가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남자가 62.5%(35명)에 달하고 있었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의 많은 수가 처가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유와 금액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결혼과정은 일반 내국인의 경우와 다르며, 이들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정도를 해석할 때 결혼과정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과정 중 지인 소개가 49.3%로 가장 많았고 전북·충남 인적자원 개발지원 센터의 조사(2006)에서도 지인 소개가 3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남성 대상자의 경우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가 26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 가장 많았다(30명, 33.3%).

강은령(1989)의 경우 결혼 전의 만남이 연애기간처럼 작용하여 연애혼이나 절충혼을 한 부부가 중매혼을 한 부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 전 만남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84.0%, 여성의 87.9%가 5회 이하이었음을 고려할 때,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결혼 전 짧은 만남은 추후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된다.

장지혜(2007)는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 만족하게 된다면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가족과의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부간의 갈등해결 방법과 삶의 질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렵지만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친밀함을 증가시키고, 갈등발생시 갈등해결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한 최지명(2007)의 연구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이 느끼는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을 보면 매우 좋다고 한 사람은 14.3%에 불과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향상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증가시켜주고 부부 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통해 부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데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미진, 2011).

박윤지(2008)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 만족도가 지인을 통한 만남 보다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배우자의 첫 인상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전 만남 횟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결혼 전 만남횟수를 보면 4회 이하로 만나고 결혼하는 부부가 전체 대상자의 80%를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대상자들이 좀 더

다양한 배우자 선택과정과 오랜 만남을 통해 상호 호감을 지닌 배우자를 결정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성도(2011)가 국제결혼 부부의 법적인 절차를 돕는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듯이, 다양한 배우자 선택과정을 통하여 상호 호감을 지닌 배우자와 결혼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부 중심의 평등적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는 미국의 측정도구를 번역 이용함으로써 문화적 오류가 많았으며, 또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정현숙, 2001). 또한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꾸준히 타당화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척도이용에서도 개념적인 혼란이 지적될 뿐만 아니라, 번역도구의 타당성이나, 측정 당시 배우자나 가족의 영향이 배제된 가운데 정확한 측정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방인하, 2010). 본 연구에서는 번역된 도구를 마련하지 않고, 통역자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시에는 국내 결혼 이민 부부의 실정에 맞는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를 번역 및 개발할 뿐만 아니라 설문 조사 시에도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정확한 조사연구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과 더불어 이혼이 가족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결혼만족도 및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하여 국제결혼 부부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충청도와 대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을 한 남성 56명과 여성결혼이민자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중학교졸업이하로 남녀 간의 학력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p < .001$ ). 남녀의 연령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여서 남성은 50.0%가 41세 이상이었고, 여성은 79.2%가 30세 이하이었다( $p < .001$ ).

배우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를 보면, 남성의 7.1%, 여성의 37.4%가 배우자로부터 매우 잘 이해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p < .001$ ). 여성대상자에 비해 남성대상자가 느끼는 배우자가 이해해주는 정도가 적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결혼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 = .032$ ), 삶의 질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p = .005$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435, p < .001$ ).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중간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이다. 추후 도시지역이나 농촌 역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반복 연구하고, 그에 따른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부부를 한 쌍으로 동시에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한 연구가 아니지만, 부부를 동시에 조사하여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비교하여야 더욱 객관적으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결혼 부부는 날로 늘어 가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구할 수 없었다. 적절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지인의 소개나, 종교적 만남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된 대상자가 많았고, 결혼 후 혼인신고나 국적 취득 등에 대한 방법을 먼저 국제결혼 한 사람에게 묻는 다고 이야기 하였다. 합법적인 국제결혼의 법적 절차나 지원을 돕는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연구 결과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국제결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가족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부부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제결혼 부부 및 가족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은령 (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취업주부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미경 (2010). *결혼이주여성의 고부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안.
- 김미숙 (1989).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성철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성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양.
- 류명옥 (2007). *문경지역 결혼이민자의 삶의 실태와 복지 대책*.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 박윤지 (2008). *일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대전·충청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방인하 (2010). *국제 결혼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주.
- 방활란 (1991).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신미진 (2011). *학부모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재 연구 :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읽기 텍스트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엄동춘 (2010). 결혼 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가 부부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0(4), 493-502.
- 여성가족부 (2007).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과찬: 여성가족부.
- 여정희 (2004). 중년 여성의 폐경관리와 결혼만족도, 삶의 질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4(2), 261-269.
- 이동원 (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연숙 (2008).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영분, 이유경 (2009).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자아분화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26, 63-86.
- 이영선 (2008).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장지혜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
- 충남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2006.5.19.). *전북충남지역 해외이주결혼 가정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정책방향*. 춘계 공동 심포지엄 자료, 전주.
- 정예리 (2011).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삶: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간호학회지*, 39(11), 89-106.
- 최성도 (2011).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결혼이민자 상담사례 중심으로*.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최지명 (2007). *국제결혼 부부(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 정서적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주.
- 통계청 (2010). *혼인 이혼통계*. 대전: 통계청.
- B.N. Subodh, A. Avasthi, S. Chakrabarti. (2008). Psychosocial impact of dysthymia: A study among married pati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9 (2008), 199-204.
- Lewis, Robert A., and Graham B. Spanier.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268-294 in W. R. Burr, R. Hill, F.I. Nye, and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 Y: The Free Press.
- Roach, A. J., Frazier, L, O. & Bowden, S.T.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WHO. (1993). *WHOQOL study protocol*. Genova: WHO.
- Woelz-Stirling, N., Manderson, L., Kelaher, M., & Gorden, S. (2000).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Filipian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791-805.

## Comparison of Mar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International Married Woman Migrants and Korean Man<sup>\*</sup>

Park, Yoon-ji<sup>1)</sup> · Jun, Myunghee<sup>2)</sup>

1) Part Time lectures,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for women and men who live in a rural area in Korea through an international marriage.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was used. Ninety-one women and 56 men were surveyed from May 1st., 2007 to April 6th., 2008.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Fisher's exact test. Two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 and WHO quality of life-brief (WHOQOL-BREF). **Result:** There is a gap between men's age and women's in the average of their marriage ; 37 vs 24. In addition, men's marital satisfaction was much higher than women's ( $t = 2.16, p = .032$ ) and quality of life was also higher than women's ( $t = -0.85, p = .005$ ). According to this survey, therefore,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 $r = .435, p < .001$ ).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marital satisfaction should be promoted by practical family nursing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to be continuously provided with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al awareness.

**Key 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Marital relationship, Quality of life, Marital satisfaction

\* This article is an addition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aejeon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Yoon-ji

Part Time lectures,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Univ., Yongun-dong, Dong-gu, Daejeon, Korea 300-716

Tel: 82-42-280-2650 Fax: 82-42-280-2785 E-mail: lava-p@hanmail.net